

“소통·화합 통한 개혁으로 광주체육 백년대계 이끌 것”

“화합·소통·통합하는 체육회 만들어 광주체육 개혁을 이끌고 시민과 선수들에게 보답하겠습니다.”

전갑수 제3대 광주시체육회장이 16일 광주시 서구 염주체육관 국민생활관 세미나실에서 취임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 회장은 취임사에서 광주체육 백년대계를 이끌기 위한 5대 현안을 제시했다. 체육회장 선거 공약을 취임식에서도 거듭 강조하고 실천 의지를 굳게 다졌다.

광주 체육발전을 위해 소통과 화합을 첫 실천 과제로 꼽았다.

그는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되는 광주체육을 이끌고 종목단체와 구체육회 구성원들을 모두 챙기고 아우르겠다”고 약속했다. 실제 그는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대립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낙선한 후보들에게도 집행부를 꾸릴 인사들을 천거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전 회장은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여 광주 스포츠 대개혁을 이루겠다”고 두번째로 내세웠다. 시민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이를 위해 일하는 체육회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는 “전직원들은 체육인들에게 봉사하고 체육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체육회는 그동안 5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 회장은 이같은 구조를 깨기 위해 과감한 조직개편을 구상하고 있다.

우선 예산집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법무, 홍보팀을 강화한다. 홍보 강화는 지역 체육성과가 시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취임

- 5대 현안 제시... 실천 의지 다져
- 조직 효율 개편, 일하는 체육회로
- 전문·생활체육부 통합 방안 검토
- 스포츠마케팅부 신설 재원 확보
- 선수들 꿈과 시민 건강 위해 총력
- 낙선 후보들에게도 인사 천거 받아

민들에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다. 감사 분야에서는 내부 통제기능을 새롭게 구축하고 객관·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인사 영입도 고려되고 있다.

조직 개편에서 눈길을 끄는 부서는 스포츠 마케팅이다. 현 전문체육부와 생활체육부를 통합해 체육지원부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광주시 재정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관행에서 탈피해 자체 성장동력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스포츠 마케팅 부서 신설은 정부, 대한체육회가 재정을 지원하는 공모 사업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전 회장의 의지가 담겨 있다.

그는 “광주체육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광주

시, 시의회 또한 대한체육회 등 중앙정부와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국비 공모사업 유치에도 전념하겠다”고 다짐했다.

스포츠 복지와 인프라 확충도 역점 사업이다.

전 회장은 “전문체육 도약을 위해 선수 연계육성과 실업팀 확대를 체육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대한 힘쓰겠다”면서 “생활체육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여 동호인들이 마음껏 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종목단체 지원을 확대해 소외받는 종목단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 또한 소통하고 화합하는 회장이로서 선수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시민에게는 건강과 행복을 체육인에게는 자긍심을 주는 체육회를 만들어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건설에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한 체육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취임식은 체육지도자, 스포츠클럽, 육성학교 선수 대표 등 현장 체육인을 초청해 간소하게 진행됐다.

전 회장은 취임식에서 앞서 시민 생활체육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후 광주체육관을 방문해 선수들과 오찬을 함께 하고 격려했다.

전 회장은 50여 년간 배구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 행정가의 길을 걸어온 경기인 출신 체육인이다. 광주 시배구협회장, 한국실업배구연맹 부회장, 광주시체육회 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장애인배구협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을 맡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갑수 제3대 광주시체육회장이 16일 오후 광주시 서구 염주체육관 국민생활관 세미나실에서 취임식을 열고 인사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피겨 사전경기에서 은메달을 딴 문승현.



다관왕에 도전하는 스키 알파인 강다현(왼쪽)과 크로스컨트리 조다은.



동계체전 오늘 개막...광주·전남 선수단 메달 사냥

광주 사전경기 문승현·장윤우 메달 하프파이프 김예나 금메달 기대 전남 사전경기 금 6 등 ‘출발 굿’ 조다은·강다현 다관왕 도전 나서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이 17일부터 나흘간 열린다.

강원, 서울, 경기, 경북, 울산 등에서 분산 개최되는 이번 동계체전은 빙상(스피드)과 아이스하키, 스키, 바이애슬론, 컬링 등 정식 종목(5개)과 봅슬레이·스켈레톤, 아이스클라이밍, 루지 등 시범종목(3개) 등 총 8개 종목이 펼쳐진다.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개·폐회식은 열지 않는다.

광주에서는 스키, 빙상 등 6개 종목에 총 83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광주는 사전경기에서 빙상(스피드) 성덕초등학교 장윤우가 첫 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장윤우는 스피드스케이팅 13세 이하부 2000m에서 3위(2분 57초95)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피겨 썸나부 문승현(주월초4)도 사전경기로 치러진 피겨스케이팅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문승현은 의정부 빙상경기장에서 열린 남자13세 이하부 싱글D조 프리 스케이팅에서 2위(32.07점)에 올랐다.

시체육회는 동계 체전 본경기에서 메달 레이스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제103회 동계체전 은메달리스트인 김예나가 17일부터 열리는 본 경기 하프파이프에 출전한다. 2013년 광주에 동지를 든 김예나는 제94회(2013), 제95회(2014) 동계체전에서 잇따라 금메달을 수확했다. 이후 제96회 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하고 제97회~제100회 대회까지 각각 금, 은, 동, 은메달을 획득하는 등 동계종목 대표 선수로

활약했다.

사전 경기에서 금메달을 캐낸 전남은 빙상, 스키, 바이애슬론, 컬링, 아이스하키 등 6개 종목에 178명(선수 123명·경기임원 55명)이 출전한다.

목표는 종합 순위 8위(금 6개, 은 5개, 동 6개)다.

전남은 사전경기에서 금메달 6개, 은메달 1개(종합 순위 6위·총 98점)를 확보한 상태다.

바이애슬론 종목 남녀일반부에서 금메달 7개 중 6개를 쓸어담았다.

전남은 스키(크로스컨트리)에서 은메달 4개, 스키(알파인)·산악(사범)에서 동메달 6개를 추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103회 동계체전 13세 이하부에서 크로스컨트리 5관왕을 차지한 조다은(화순제일중 1년)과 지난해 13세 이하부에서 알파인 4관왕에 오른 강다현(여수삼일중 1년)이 다관왕에 도전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안세영·이용대 등 스타 총출동

규모 커진 배드민턴 실업리그 오늘 개막...2개월간 대장정

지난해 출범한 국내 배드민턴 실업리그가 규모를 키워 두 번째 시즌을 맞는다.

‘2023 한국실업 열정 배드민턴리그’가 17일 개막해 4월 9일까지 열정국립 후원으로 2개월간 대장정에 나선다.

남녀 실업팀은 17일부터 3월 4일까지 경기도 포천종합체육관에서 각 2개 조로 나뉘어 리그전을 치른 뒤 4월 2~9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에서 6강 토너먼트로 우승팀을 결정한다.

남녀 각 8개 팀이 참가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에는 남자 12개 팀, 여자 9개 팀이 도전장을 내밀면서 우승 경쟁이 한층 치열해졌다.

남자팀 A조에는 요넥스·고양시청·이천시청·당진시청·MG새마을금고·광주은행이 속했다. B조는 밀양시청·충주시청·수원시청·삼성생명·광명시청·국군체육부대로 꾸려졌다.

여자팀은 삼성생명·MG새마을금고·시흥시청·포천시청이 A조에 편성됐고, 영동군청·KGC인삼공사·화성시청·전북은행·화순군청이 B조에서 경쟁한다.

각 조 1위 팀은 4강전에 직행하고, A조 3위-B조 2위, A조 2위-B조 3위가 맞붙어 남은 4강전 티켓의 주인공을 결정한다.

단체전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복식 1경기, 단식 1경기, 복식 2경기, 단식 2·3경기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대회에는 국가대표 출신 베테랑 이용대(35·요넥스), 손완호(35·밀양시청)를 비롯해 현 국가대표 안세영(21), 김해정(25·이상 삼성생명), 정나은(23·화순군청), 최슬규(28), 서승재(26·이상 국군체육부대) 등이 총출동한다.

/연합뉴스

역시 국대 쇼트트랙 김길리·심석희 동계체전 ‘금’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시리즈를 마치고 돌아온 국가대표 김길리(서현고)와 심석희(서울시청)가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김길리는 16일 울산과학대 아산체육관 빙상장에서 열린 대회 쇼트트랙 여자 19세 이하부 1500m 결승에서 2분32초783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올 시즌 첫 시니어 월드컵 시리즈를 치른 김길리는 지난해 11월 2차 대회와 이달 초 5차 대회에서 1500m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이 종목 월드컵 랭킹 1위(450점)를 차지하며 ‘차세대 에이스’로 떠올랐다.

6차 대회까지 마무리하고 14일 귀국한 김길리는 동계체전에서도 가볍게 1500m를 제패했다.

여자 일반부 1500m에 출전한 심석희는 2분45초314의 기록으로 노아름(전라북도청·2분45초390), 김해빈(화성시청·2분45초470) 등을 제치고 우승했다. 서휘민(고려대)은 여자 대학부 500m에서 46초351로 정상에 올랐다.

이번 전국체전에는 남녀 쇼트트랙 대표팀을 이끄는 박지원(서울시청)과 최민정(삼남시청)은 출전하지 않았다. 이들은 다음 달 10~12일 서울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열리는 ISU 세계선수권대회 준비에 전념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엔트맨과 와스프: 퀴텀매니아, 메간
- 2관 엔트맨과 와스프: 퀴텀매니아, 타이타닉
- 3관 타이타닉, 네가 떨어뜨린 푸른 하늘
- 4관 엔트맨과 와스프: 퀴텀매니아
- 5관 엔트맨과 와스프: 퀴텀매니아, 상견니
- 6관 엔트맨과 와스프: 퀴텀매니아
- 9관 더 퍼스트 슬램덩크, 어메이징 모리스
- 7관 씨네커플 어메이징 모리스,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메간
- 8관 씨네커플 영웅, 교섭, 네가 떨어뜨린 푸른 하늘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3



2023년 국악상실공연
일시 : 2023-02-01(수) ~ 2023-02-26(일)
매주 수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광주시립합창단 특별공연
국립광주박물관과 함께하는 판소리감상회
일시 : 2023-02-26(일), 2023-03-26(일) 15:00
장소 : 국립광주박물관 대강당
문의 : 062-526-0363



즐거움 문화 산책

